
2025.09.26.

〈언젠가 너로 인해 우린〉

- 2세 스프레드 -

리딩 by. 유이/리메아

1. 아이의 성격

머리가 좋고 다재다능하지만 가진 재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머리를 이용해 약은 행동을 하거나 공공이가 많은 아이인데요. 또래 아이들이 미숙한 행동으로 사건사고를 일으킨다면 이 친구는 의도를 갖고 사건을 일으키는 사고뭉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아이메리크를 닮은 부분

정에 약하고, 쉽게 가까운 사람에게 휘둘리는 부분이 닮았다고 나오네요. 아이메리크 총장은 아마 이런 모습을 가까운 사람인 샤프아에게 보여주리라 생각되는데, 아이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한 친구나 부모님의 부탁을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부탁만으로는 아이 스스로의 본성을 모두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또래 친구들이 부탁하는 경우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리라 봐요. 자신이 해결사가 되고 의지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이가 아이메리크를 닮은 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3. 아이가 샤프아를 닮은 부분

아이는 샤프아로부터 어떤 결핍을 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샤프아를 갇아먹던 결핍이 아이에게도 유전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마 사랑받고 충족되고자 하는 본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받는 인간인지 무리에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로맨스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관심을 받고 애정의 대상인지를 알고 싶어한다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라도 2번에서 말했듯이, 해결사라는 어떤 포지션을 자처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까 싶네요.

4. 아이가 타고난 것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이를 각별하게 여깁니다. 이건 확실히 부모님과 관계 없는 아이만의 개성이 맞네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두루두루 친밀하게 지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이의 인생에 즐거움이라는 장식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5. 아이에 대한 아이메리크의 감정

아이메리크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에는 샤프아와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기쁨이 더해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때문에 아이메리크가 아이에게 갖는 태도는 더없이 애정이 충만하며 허들이 낮습니다. 아이는 압삽하고 잔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팔불출이어서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6. 아이에 대한 샤프아의 감정

아이메리크가 행복에 잠겨 있는 반면, 샤프아는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니 덜컥 육아와 기타 등등 부모로서 해야할 여러 희생들에 대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샤프아로서는 원래 아이메리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보다 더 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7. 세 사람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무래도 아이에 대해 공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서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도 바깥으로 외출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셋이서 보내는 시간에 납득했을 것 같아요. 다만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있는 이 상황을, 샤프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메리크가 아이의 곁을 지켰을테니 아이 걱정은 없겠지만 샤프아가 걱정이에요.

8. 아이와의 이별

아이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 또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메리크와 샤프아는 아이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방법을 수소문했고, 갖은 노력 끝에 아이를 집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존재에도 아이가 집에 돌아가는 것에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이 깃들여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아이는 돌아가야 할 자리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